

# 대학도서관에서의 고전자료 개발방안

##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송 정 숙\*

### 목 차

- |                      |               |
|----------------------|---------------|
| 1. 서 론               | 4. 고전자료의 개발방안 |
| 2. 고전자료 개발의 필요성      | 5. 결 론        |
| 3. 고전자료 개발의 현황과 장애요인 |               |

## 1. 서 론

부산대학교는 1991년에 21세기를 대비하여 이 대학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발전계획을 공표하였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에 부여된 사명을 지원하도록 설립된 기관이므로<sup>1)</sup> 봉사해야 할 대학의 주요목표와 그밖에 대학의 관리상의 조직과 학문적 분위기 - 대학의 조직, 권한 및 지리적인 위치; 강의와 연구, 저술에 대한 관심; 학생의 규모와 성격; 교과과정의 범위; 대학본부의 위치; 재원; 도서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대학도서관장과 사서의 권한 및 신분; 대학발전계획 - 에 영향을 받는다.<sup>2)</sup> 따라서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이 발전계획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되어 있다.

이 논문의 출발점은 장기발전계획과 관련지워 볼 때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 고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1) M.A. Gelfand, *University Libraries for Developing Countries*, 李柄穆 譯 「大學圖書館」, (서울: 구미무역(주)출판부, 1972), p. 24.

2) 위책, p. 27.

전자료<sup>3)</sup>의 개발이 절실한지 그 필요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다음으로 부산대 도서관의 고전자료개발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분석하며, 그 대안으로서 고전자료의 개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고전자료 개발의 필요성

대학의 기능은 연구와 교육, 즉 지식의 생산과 전수라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주기능은 지식의 생산이다. 한국의 대학은 사회과학분야의 경우 독자적인 지식을 쌓는데 주력했다기 보다는 서구의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여 소개하는데 급급했다. 우리 현대 학문의 출발점은 전통적인 학문의 토대 위에서 서구의 지식을 도입하는 주체적인 입장이 아니었다. 전통적이고 자생적인 우리의 학문은 학문이 아니라는 듯이, 나아가 우리에게 학문이 없었다는 듯이 서구의 이론과 지식을 수입해서 전달하기에 급급한 종속적이고 몰주체적인 입장이었다. 이러한 인식의 기반 위에서는 고전자료의 중요성을 깨우치지 못함이 자연스럽다. 도서관에서도 고전자료의 개발이라는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미 소장된 자료의 보관이라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계는 서구이론의 무분별한 도입에 대해 반성하면서 현실에 적용시켜 도입·소개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의 특징적인 현상은 잡화상 또는 조립식의 원론에서 외국 이론을 이해하고 소개하며 그 나름대로 체계있는 원론이

3) '古典資料'라 함은 현대자료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古書, 古文書, 古地圖 등 도서관 자료 가운데 현대 이전의 자료를 통칭한다. 그러나 도서관의 소장현황으로 볼 때 고전자료는 거의 대부분 古書에 한정된다. 古書의 개념은 李載喆, "韓國에서의 古典籍分類考", 「민족문화(民族文化推進會)」, 創刊號(1975), pp. 22-24를 참고하라.

4) 고전자료개발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尹炳泰, "大學圖書館에서의 古書·貴重書 藏書開發", 「圖書館學(韓國圖書館學會)」, 第九輯(1982), pp.3-35.

申學均, "國立中央圖書館에 있어서 古書蒐集과 管理", 「變化하는 社會에 있어서의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과 責任-國立中央圖書館開館 60周年 記念論文集-」(서울:國立中央圖書館, 1981), pp. 73-81.

洪九杓, "大學圖書館 古書室 運營의 活性化 方案", 「國立大學圖書館報(國立大學圖書館協議會)」, 第9輯(1991), pp. 88-107.

柳浚正, "古典資料室 運營의 活性化에 關한 研究", 「圖書館學論集(韓國圖書館·情報學會)」, 제19집(1992), pp. 115-143.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과 ‘한국화’, ‘토착화’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이라는 명칭이 붙은 저서나 논문이 많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종범은 이 시기를 단순모방기에서 적용모방기로 이행하는 단계라고 하였다.<sup>5)</sup>

즉 이때는 외국이론이 한국상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도 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던 때와는 달리 ‘한국화’, ‘토착화’에 대한 각성이 생기면서 한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었다. 학문이 주체성을 찾아 스스로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에 유관한 문제를 자율적으로 포착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야 된다.<sup>6)</sup> 이러한 시대적 요청으로 나타난 한 양상이 고전자료에 대한 관심이었다. 도서관계에서 고전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책자형 목록인 고서목록을 발간하기 시작한 것이 1970년 전후의 일이니,<sup>7)</sup> 이는 학계의 고전자료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주요목표에 영향을 받는다. 대학의 주요목표는 대학도서관에서 장서개발정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대학 자체가 현재와 미래를 관망한다는 것은 장서계획의 중요한 초석이 된다. 예를 들면 대학원의 확대나 연구기관의 설립은 대학도서관 이용자와 대학사회가 필요로 한 자료의 형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up>8)</sup> 따라서 대학도서관의 자료는 대학 내의 모든 사람이 이용

- 5) 문화이식의 유형에 비추어 보면, 학문의 발전단계는 다음의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① 단순모방기: 선진국의 이론과 지식의 무비판적 도입과 소개의 단계 ② 적용모방기: 선진국의 이론이나 접근방법을 현실에 적용시켜 도입·소개하는 단계 ③ 창조태동기: 새로운 이론과 개념의 창조가 시도되는 시기 ④ 학문성숙기: 이미 개발된 특수이론을 외국에 소개, 비교연구를 하면서 이론의 일반화에 역점을 두는 시기  
李宗范, “韓國行政學研究의 方向과 課題-文化的 差異의 概念을 중심으로-”, 『韓國政治學會報(韓國政治學會)』, 제13집(1979), p. 68.
- 6) 安秉永, “韓國의 行政現象과 行政學研究의 主體性”, 『韓國政治學會報(韓國政治學會)』, 제13집(1979), p. 60.
- 7) 국회도서관 편, 「국회도서관 한국고서종합목록」, 서울: 국회도서관, 1968.  
國立中央圖書館 編, 「古書目錄」 1-5, 서울: 國立中央圖書館, 1970-1980.  
嶺南大學校 中央圖書館 編, 「漢古籍藏書目錄」, 경산: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973.  
文化財管理局 藏書閣 編, 「藏書閣圖書韓國版 總目錄」, 서울: 文化財管理局 藏書閣, 1972.  
國學資料保存會 編, 「韓國典籍 綜合目錄」 제1-8집, 1974-1981.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編,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古書目錄」, 서울: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1977.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 編, 「晚松金完燮 文庫目錄」, 서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1979.  
서울대학교 도서관 편, 「奎章閣韓國本 綜合目錄」 上·下, 서울: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1.
- 8) Andrea Hoffman, “Collection Development Programs in Academic Libraries: An Administrative Approach”, *Bookmark*, 38(Spring, 1979), pp. 122-123.  
류인석, “한국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1. 12, pp. 49-50에서 재인용.

할 수 있도록 각각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성을 필요로 한다.<sup>9)</sup>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당면과제는 장기발전계획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하여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 고전자료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부산대학교는 개교 45주년을 맞은 1991년에 21세기를 10년 앞두고 대학의 본질적 기능에서 수월성을 지향하는 국제수준의 명문대학교, 창조적 학문연구를 주도하는 연구 중심의 대학원 중심 대학교,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중핵 대학교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며, 이를 수행하는데 선결해야 할 발전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한국이 향후 10년간 정치·경제·사회·문화·남북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계속하여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국가발전에 대한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대학이 선진외국에서 연구개발된 이론·기술·정보의 도입·전달기능을 탈피하고 각 학문영역의 기초이론을 창조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공급해야 한다는 대학의 발전에 대한 전망에 근거한 것이다.<sup>10)</sup>

부산대학교가 제시한 국제수준의 명문대학교, 대학원 중심 대학교, 지역중핵 대학교라는 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에 필수적 지원기관인 대학도서관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대학도서관이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출발점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 즉 자료이다. 훌륭한 학자는 훌륭한 도서관을 필요로 하고, 훌륭한 도서관은 훌륭한 학자를 끌어들이므로<sup>11)</sup> 대학의 연구와 교육의 수준은 훌륭한 장서에 의한 도서관 봉사로 향상될 수 있다.

우선 부산대학교가 국제수준의 명문대학이 되려면 다른 학문 분야는 물론이고 한국에 관한 연구, 즉 한국학 분야가 국제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만

9) 부산대학교 도서관학과 학생회 엮음, "제21선언 : 장서개발에 문제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 개혁운동 자료집」(부산:부산대학교 도서관학과, 1989), p. 40.

10) 「釜山大學校 長期發展計劃(1992-2001)」(釜山:釜山大學校, 1991), pp. 1-4.

11) Hendrik Edelman and G.Marvin Tatum, Jr., "The Development of Collections in American University Librari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37(3)(May, 1976), p. 237. 이 논문에서는 대학원 교육의 질과 도서관 장서가 특히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민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외래문화의 선별수용을 통하여 민족문화가 정립되며, 국제적인 문화교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이를 위해서는 한국학 분야의 기초자료가 되는 고전자료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연구 중심의 대학원 중심 대학이라 함은 학문의 심오한 연구와 고급전문인력의 양성이라는 기능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의 대학이 선진 외국에서 연구·개발된 이론과 기술을 도입하여 전수하는 수준에서 탈피하여 창조적으로 이론·기술·정보를 연구개발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적인, 한국의 상황에 맞는 적실성있는 연구가 요망된다. 이는 한국이라는 삶의 현장을 외면할 때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한국의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규명과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자료의 수집과 이용에서 시작된다. 이론의 생산은 자료없이 불가능하다. '한국적'인 이론은 '한국적'인 자료에 바탕할 때 생산될 수 있다.<sup>13)</sup>

연구 중심의 대학원 중심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의 장서수준은 연구에 가치있는 모든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는 포괄적 수준(comprehensive level)은 되지 못하더라도 학부과정의 학습은 모두 지원하고 교수진과 석박사 과정의 연구는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자료를 갖춘 연구 수준(research level), 즉 박사학위논문 작성과 독자적 연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sup>14)</sup>

부산대 도서관이 신축도서관의 준공을 앞두고 현도서관은 교양·교재용 자료와 좌석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를 위한 학습도서관으로, 신축도서관은 대학원생과 교수를 위한 전문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해 조직된 자료 중심의 연구도서관으로 이원체제의 도서관 운영을 구상하여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sup>15)</sup> 이 구상도 도서관이 연구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여겨진다. 이처럼 학문연구를 위해 특정전문주제의 자료를 제공하는 연구도서관이 되려면 고전자료의 구비는 필수적이다.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중핵대학교라고 하면 부산대학교가 위치한 지리적

12) 『釜山大學校 長期發展計劃(1992-2001)』, p. 3.

13) 趙東一, "民族文化研究의 課題와 方向",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民族文化研究의 方向』(경산:嶺南大學校 出版部, 1980), pp. 218-222 참조.

14) 송영희 외, 「장서개발론」(서울:구미무역(주)출판부, 1992), p. 52.

15) 김경희, "이전준비 이렇게 되고 있다.-이전계획의 개괄-", 『도서관소식(부산대학교 도서관)』, 제4호(1993), pp. 4-7.

여건을 고려할 때 영남권의 학문과 문화 창조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이 이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영남권의 자료, 즉 영남에서 생산된 자료와 영남에 관한 자료는 망라적으로 수집·보존·조직·봉사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된다. 이로 볼 때 이 대학 도서관은 영남권 자료의 일부인 영남에서 생산된 고전자료와 영남에 관한 고전자료도 망라적으로 수집·보존·조직·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도출된다.

위에서 살폈듯이 부산대학교의 장기발전계획에 걸맞게 부산대학 도서관의 장서가 구비되기 위해서는 고전자료가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 3. 고전자료 개발의 현황과 장애요인

#### 3.1 현 황

한국 대학의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논문 발표수준은 1992년 한해 동안 세계적인 주요학술지에 2,461편의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1993년 2월 기준으로 세계 30위이다. 이는 중국이 15위, 대만이 24위를 차지한 것에 비해 훨씬 떨어진 수치이다. 또한 미국의 103분의 1, 일본의 21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한국 이공계 대학의 연구업적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임이 드러났다. 물론 한국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미국의 3%, 일본의 6%선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 성과 자체가 미미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측면도 있다.<sup>16)</sup>

한국 대학 내에서 이공계 분야가 인문·사회계보다 연구업적이 상대적으로 뒤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이처럼 한국 대학의 연구 현황은 상당히 부진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연구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sup>17)</sup> 이러한 방안 가운데 가장 우선 순위로 꼽히는 것이 열악한 연구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연

16) 강경림, "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 ㉞ 교수연구, 그 성과와 여건(하)-", 「한국대학신문」, 1993년 9월 20일자.

17) 서울대학교의 「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연구경비제도」와 「교수업적관리 평가제」, 부산대학교의 「교수연구업적 1990-1991」(1992)발간과 이미 각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구년제(일명 안식년제) 등을 들 수 있다.

구비의 증액이다.

그런데 연구비 지원 못지 않게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도서관 봉사수준의 혁신이다. 서울대학교의 어느 교수의 언급과 같이 “대학의 도서관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sup>18)</sup>이 되어 버리고, “각각의 교수들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서적을 마련해야 한다.”<sup>19)</sup> 대학도서관의 주요 기능인 연구지원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하겠으며, 이는 대학도서관의 존립 근거마저 위태롭게 한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1987년 이래 부산대학교 도서관학과를 중심으로 한 ‘도서관 개혁운동’이다. 이는 폐가제에서 개가제에로의 서가 개방, 자료 열람시간의 확대, 비사서직의 타부서에로의 이동, 대학 성원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전환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이 운동이 고전자료에까지 깊이있게 심화되지는 못했다.<sup>20)</sup>

부산대학교의 경우 연간 자료구입을 위한 6억 8천만 여원의 예산 가운데 고전자료 개발을 위한 예산은 거의 없다.<sup>21)</sup> 따라서 구입은 거의 불가능하고 기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기증을 독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개발하였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단지 독지가가 나타나서 고서를 기증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로 볼 때 고전자료 개발을 위한 노력은 매우 소극적이라 하겠다.

도서관에서는 고전자료실 이용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을 할당할 필요성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이용자가 거의 없는 이유는 이용할 자료가 거의 없거나 혹은 이용자에게 자료를 제공할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부산대 고전자료실 두 경우가 다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소장자료는 15,300 여책으로 규장각의 14만 여책, 연세대·고려대 도서관의 9만여 책에 비할 때 절대적으로 빈약하다. 고전자료실에서 자료를 검색하더라도 절대량이 부족하므로 망라적으로 해결되기가 불가능하기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용자를 위한 봉사 현황을 보면 책자형 고서목록도 없고, 독립된 공간도 있

18) 강경림, 앞글.

19) 위글.

20) 부산대학교 도서관 개혁운동 관련문서 가운데 고전자료에 대한 것은 제28선언:古書수집의 문제, 제29선언:古書정리와 조직문제, 제30선언:古書의 보존과 이용의 문제이다.

21) 부산대학교의 도서관 자료구입비는 1990년도 : 697,710,000원, 1991년도 : 683,313,080원, 1992년도 : 689,250,000원이다. 「도서관소식(부산대학교 도서관)」, 제3호(1992년 8월), p. 6.

지 아니다. 2-3년 전부터 사서가 배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봉사수준이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장서목록이 없으므로 어떤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지 도서관에 가서 카드목록을 찾아 보아야 검색이 가능하다. 고전자료의 경우 서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판본이나 판차에 따라 자료의 가치가 상이한 경우가 허다한데, 카드목록도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고전자료는 자료의 특성상 보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별실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다. 고전자료는 원칙적으로 관외대출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내에서의 열람이 편리하도록 좌석이나 복사시설, 참고자료 등 제반 시설과 자료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배려도 미흡하다. 이처럼 장서의 규모도 빈약하고 봉사의 수준도 열악하므로 이용자들로부터 오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대 고전자료실은 이용자를 불러들이는 구조가 아니라 그 반대인 듯하다. 서양자료실을 경유해서 KDCP를 지나서 한 모퉁이에 자리한 고전자료실의 위치가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3. 2 장애요인

부산대학교에서 고전자료의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은 우선 사서를 비롯한 대학 성원 전체의 고전자료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라고 생각된다. 사서가 고전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자료를 갖추어 놓고 연구자들을 유인한 것도 아니고, 연구자가 사서나 대학 당국에 요청해서 자료를 갖추도록 채근한 것도 아니다. 대학도서관의 발전은 양질의 서비스가 먼저 있을 때 고객이 나중에 생기는 측면과 고객의 필요와 요구가 먼저 있을 때 양질의 서비스가 따라 자라는 측면 속에서 변증법적으로 진행된다. 지금 한국의 대학에는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가 적으므로 있는 고객마저 좌절을 겪게 되며, 고객의 요구가 전체적으로 저조하므로 서비스의 질과 양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sup>22)</sup> 고전자료실도 예외는 아니어서 사서는 고전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연구자는 부산대 도서관을 체념한 결과라고 하겠다. 한편으로 이는 부산대학교가 다른 대학에 비해 한국학의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것과도

22) 김정근, "대학도서관발전의 계기에 관한 연구", 『圖書館文化(韓國圖書館協會)』, 제30권 제5호(통권258호, 1989. 9·10), pp. 224-225.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sup>23)</sup>

고전자료가 한국문학, 한국사, 한국철학 분야의 연구에 한정된 자료라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전체 학문분야에서 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량적으로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sup>24)</sup> 이처럼 활용도가 적다 할지라도 고전자료는 이미 생산이 중단된, 절판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개발하지 아니함은 합당하지 않다. 종합대학의 도서관은 학부와 대학원의 교과과정은 물론 대학원생과 교수진의 연구활동을 지원해야 하므로 장서는 학술적이고, 이용빈도가 적으며, 비용이 많이 드는 경향이 있다.<sup>25)</sup>

그런데 고전자료가 다른 연구자들에게 무관하지 않다. 고전자료는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의 순수과학과 약학·의학·공학·농학 등의 응용과학 뿐만 아니라 음악·미술·무용·연극 등의 예술처럼 모든 학문 분야에 기초가 되는 자료이다.<sup>26)</sup> 다시 말하면 고전자료는 소수의 첨단과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학과의 연구와 교수·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현재 행해지고 있는 연구와 교수·학습이 해당 학문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다. 고전자료가 학문의 거의 모든 분야에 기초자료가 됨은 다음 자료로도 그 윤곽을 파

23) 부산대학교에 설립된 한국학 분야의 연구소는 韓國文化研究所(1987년 설립, 이하 설립 생략)가 유일하다. 이는 서울대학교의 東亞文化研究所(1961년), 韓國文化研究所(1969년), 人文科學研究所(1979년), 고려대학교의 民族文化研究所(1957년), 韓國學研究所(1986년), 연세대학교의 국학연구원(1977년, 東方學研究所<1948년>가 개편), 人文科學研究所(1964년), 경북대학교의 人文科學研究所(1985년, 東洋文化研究所<1973년>가 개편), 退溪研究所(1973년), 영남대학교의 民族文化研究所(1978년, 新羅伽倻文化研究所<1960년>가 개편), 人文科學研究所(1981년, 東洋文化研究所<1951년>가 개편)와 비교해 볼 때 부산대학교는 이 분야의 연구소가 적을 뿐만 아니라 설립연대도 늦음을 알 수 있다.

각 대학의 고전자료의 소장규모를 보면 부산대학교는 15,398책으로서 서울대학교의 202,955책, 연세대학교의 90,977책, 고려대학교의 93,689책, 경북대학교의 14,992책, 영남대학교의 35,618책(韓國圖書館協會, 「韓國圖書館統計」, 서울:韓國圖書館協會, 1992)과 비교할 때 왜소하다. 이로써 각 대학의 국학 연구 열의와 고전자료의 소장규모는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24)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1993년 10월말 현재 부산대학교 86개 학과, 전임교수 772여명 가운데 인문대학의 국어국문학과 4명, 사학과 4명, 철학과 2명, 한문학과 4명, 고고학과 2명, 사범대학의 국어교육과 4명, 역사교육과 4명 등 7개 학과에 24명(3.1%)이다.

25) Mary Duncan Carter, *Building Library Collections*, 4th, ed., (Metuchen, N.J. : The Scarecrow Press Inc., 1974), pp. 49-50.

26) 이와 유사한 시각이 L. J. Taylor comp., *A Librarian's Handbook*, (London: The Library Association, 1976), p. 181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악할 수 있다.<sup>27)</sup>

아울러 대학당국이나 도서관 모두 고전자료가 지식 전달과 지식 진작이라는 대학의 전통적 기능과 의무 이외에 한국의 문화와 유산을 해명하고 이해하도록 하며,<sup>28)</sup> 한국학문의 주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기억해야겠다.

다음으로 고전자료의 개발을 위한 기구의 미비를 들 수 있다. 대학도서관은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조직되어야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sup>29)</sup> 기구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되는데, 고전자료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고전자료를 수집·보존·조직·봉사하기 위한 조직이 없고, 고전자료의 개발을 담당할 전문사서도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고전자료의 개발을 위한 예산의 결여를 들 수 있다. 고전자료의 가치를 간과하고 있으므로 고전자료의 개발을 위한 예산 배당도 없는 실정이다. 자료를 구입하지 않고 기증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례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재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조선조에도 국왕에게 서적을 기증하는 사람에게 벼슬이나 금품을 내리는 등 어떤 형식으로나마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상례였던 듯하다.<sup>30)</sup> 설령 기증에 의지한다 할지라도 얼마간의 예산은 확보되어야 적극적으로 기증을 의뢰할 수 있을 텐데,<sup>31)</sup> 예산이 전무하다는 것은 고전자료의 개발의지를 상실했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고전자료의 개발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부산대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지적 구심체의 역할을 일부 포기한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이제까지의 학문연구가 서울 중심·중앙 중심이었으며, 역사의 기술도 입신출세한 사람들, 즉 정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쓴 것이었다. 지방의 설명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이고 주변적인 것이었다. 이제는 땅에 새겨진 역사, 땅 속에 묻힌 역사, 땅과 함께 전해져 온 역사를 지방의 향기와 함께 전하기 위해서<sup>32)</sup> 영남지역에 위치한 부산대학교 도

27) 李基白, 「參考書目」, 『韓國史新論』, 改正版.(서울:一潮閣, 1976), pp. 466-523.

東亞日報社 編輯部 編, 『韓國의 古典百選』, 서울:東亞日報社, 1969.

28) M.A.Gelfand, 앞책, p. 20.

29) 위책, p. 43.

30) 鄭亨愚, 「朝鮮時代 書誌史研究」(서울:韓國研究院, 1983), pp. 56 - 61 참조.

31) '자료를 기증받을 경우 귀중도서·고도서는 감정가격의 80% 이하를 사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국립대학 도서관협의회 편, 『大學圖書館實務便覽』(서울:日新出版社, 1982), p. 27.

32) 芳賀 登, 「地方文化的 保存」 呂博東·小林幸夫 共譯 (서울:教育科學社, 1985), p. 243.

서관은 이 지방에 전해내려오는 선조의 노력의 자취를 연구자들이 기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보존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속에 우리 민족의 생활사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sup>33)</sup>

#### 4. 고전자료의 개발 방안

고전자료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서를 비롯한 대학 성원 전체의 고전자료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고전자료가 한국문학·한국사학·한국철학 등의 몇몇 학과에 국한된 자료가 아니라 거의 모든 학과의 연구와 교수·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겠다.

다음으로 고전자료의 개발을 전담할 조직이 고전자료실에 설치되어야겠다. 자료의 특성상 수서과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자료실에서 수집·보존·조직·봉사를 함께 취급하는 통합형<sup>34)</sup>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고전자료의 개발을 전담할 전문사서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국학 분야에 주제배경이 있는 전문사서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겠으며, 조만간 실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담사서<sup>35)</sup>를 두어 이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축적되도록 하여야겠다. 국학 분야의 교수와 사서로 구성된 고전자료개발위원회(가칭)을 두어 자료를 개발할 때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일 듯하다.

고전자료의 개발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야겠다. 일회적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산이 할당되기 위해서 고정비(fixed charge)에 넣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 고서상들에게도 고전자료를 구입할 의사가 있음을 통보하여 복본이 아닌 한 구입해야 한다. 원본을 수집하기가 힘든 자료는 영인본이라도 갖추어야 겠

33) 崔永俊, 「嶺南大路-韓國古道路의 歷史地理的 研究-」, (서울: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90), pp. 11-15 참조. 이 저서는 근대화로 인해 산실의 우려가 큰 우리의 문화유산들을 수집, 보존하려는 노력의 결실이다.

34) 대학도서관 업무조직구조에 있어 통합형과 분산형의 특성 및 장단점 비교는 윤현옥, "대학도서관의 연속간행물 업무조직에 대한 연구-분산형과 통합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3을 참고하라.

35) 전담사서란 인사이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한 부서에서 한 업무를 전담하는 사서로서 지식과 기술의 축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으며, 영인본도 나와 있지 아니한 자료는 정신문화연구원이나 국사편찬위원회, 규장각 등에 의뢰해서 복사본이나 마이크로형태 복제본을 구비하도록 해야겠다. 복사본이나 마이크로형태 복제본도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는 복사 봉사라도 가능하도록 도서관에서 협동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적어도 국내의 자료는 망라적으로 부산대학교 고전자료실에서 해결이 되도록 하여야겠다.

구입의 방법으로 획득할 수 없는 고전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영남 지방의 장서가나 장서가 많은 문중, 서원 등을 고전자료실 명예회원(가칭)으로 위촉해서 그들의 소장 장서를 개방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자료의 감별이나 효율적인 보존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전자료실을 홍보하며, 나아가 이런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자료의 위탁관리<sup>36)</sup>나 기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기증하는 책수가 일정량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문고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보직하다.<sup>37)</sup> 이따금 소장자료의 초대전 등을 개최하여 홍보하도록 한다.

고전자료를 열람하면서 일어나는 의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국학분야의 사전·백과사전·색인·목록·해제집 등 참고자료를 비치하여 필요한 원전자료와 자료에 관한 의문을 이 자료실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책자형 고서목록의 발간과 아울러 관내 열람이 편리하도록 열람시설과 복사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복사시설, 귀중한 자료가 안전하고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항온·항습시설과 자동소화시설을 갖추어<sup>38)</sup> 연구도서관인 신축도서관에 고전자료실을 마련하면 '아무도 가지 않는 고전자료실'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대학교의 학문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36) 위탁관리되는 책을尹炳泰님은 "寄託圖書(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상당량의 도서를 기한부로 또는 무기한부로 도서관에게 委託하여, 그 보존과 이용을 조건으로 맡긴 책)"라고 했다.尹炳泰, 앞의 논문, p. 19.

37) 국립중앙도서관 개인문고설치 및 운영규정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인문고의 설치는 다음에 의한다.

- ① 도서관 자료 1,000점 이상(복본 제외)을 일괄 기증한 것으로서 개인문고의 설치를 희망할 때, 다만 1,000점 이하일 때라도 관장이 개인문고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 개인문고 설치를 원하는 자는 설치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여부는 관장이 결정한다. 국립중앙도서관 편, 「국립중앙도서관현행규정집」(서울:국립중앙도서관, 1990) p. 169.

38) 도서관 장서 보존을 위한 적절한 환경은 미국연구도서관협의회, "도서관 장서 보존을 위한 환경 조절", 이병목 옮김, 「圖書館文化(韓國圖書館協會)」 제30권 제6호(1989.11·12), pp. 51-53을 참고하라.

## 5. 결 론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이 대학이 지향해야 할 목표인 장기발전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전자료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부산대학교 도서관 고전자료실의 현황을 보면, 장서가 15,400 책으로서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독립된 공간, 책자형 고서목록, 참고자료와 복사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용자를 위한 봉사수준도 매우 열악하다. 이는 사서와 대학 성원 전체의 고전자료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고전자료의 개발을 위한 조직, 전문사서와 예산의 결여에 기인한다.

고전자료는 한국문학, 한국사학, 한국철학 분야에 한정된 자료가 아니라 모든 학문의 근간이 되므로 소수의 첨단과학을 제외하고는 전 학과의 연구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이다. 또한 이는 한국 학문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 바탕이 되고, 한국의 문화와 유산을 해명하고 이해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자료이다.

부산대학교 당국과 도서관은 고전자료의 학술적 가치를 인식하여 고전자료의 개발할 전담할 조직, 전문사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원본은 복본이 아닌 한 모두 구입하고, 원본의 구입이 어려운 자료는 영인본, 복사본, 마이크로 형태 복제본 등을 갖추어 국내의 자료는 모두 이 대학의 고전자료실에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구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자료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장서가나 서원, 문중 등의 소장자료를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사서와 교수로 구성된 고전자료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문을 구하도록 해야 한다. 소장 고서목록의 발간과 아울러 국학 분야의 참고자료와 열람에 편리를 도모하는 열람시설, 복사시설 등과 항구적인 보존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고전자료실을 신축 중인 연구도서관에 마련하면 부산대학교의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참고문헌

-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 編, 『晚松金完燮文庫目錄』, 서울: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1979.
- 國立中央圖書館 編, 『古書目錄』 1-5, 서울:國立中央圖書館, 1970-1980.
- 國學資料保存會 編, 『韓國典籍 綜合目錄』 제1-8집, 1974-1981.
- 국회도서관 편, 『국회도서관 한국고서종합목록』, 서울:국회도서관, 1968.
- 文化財管理局 藏書閣 編, 『藏書閣圖書韓國版 總目錄』, 서울:文化財管理局 藏書閣, 1972.
- 서울대학교 도서관 편, 『奎章閣韓國本 綜合目錄』, 上,下, 서울:서울대학교 도서관, 1981.
-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編,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古書目錄』, 서울: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1977.
- 嶺南大學校 中央圖書館 編, 『漢古籍藏書目錄』, 경산: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973.
- 강경림, “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 ⑩ 교수연구, 그 성과와 여건(하)-”, 『한국대학신보』, 1993년 9월 20일자.
- 국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편, 『大學圖書館實務便覽』, 서울:日新出版社, 1982.
- 국립중앙도서관 편, 『국립중앙도서관현행규정집』, 서울:국립중앙도서관, 1990.
- 김경희, “이전준비 이렇게 되고 있다-이전계획의 개괄-”, 『도서관소식(부산대학교 도서관)』, 제4호(1993).
- 김정근, “대학도서관발전의 계기에 관한 연구”, 『圖書館文化(韓國圖書館協會)』, 제30권 제5호(통권258호, 1989. 9·10).
- 東亞日報社 編輯部 編, 『韓國의 古典百選』, 서울:東亞日報社, 1969.
- 류인석, “한국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연세대학교 대학원), 1991. 12.
- 柳浚正, “古典資料室 運營의 活性化에 關한 研究”, 『圖書館學論集(韓國圖書館·情報學會)』, 제19집(1992).

- 芳賀 登. 『地方文化의 保存』. 呂博東·小林幸夫 共譯. 서울:教育科學社, 1985.
- 부산대학교 도서관 편. 『도서관소식(부산대학교 도서관)』. 제3호(1992년 8월).
- 부산대학교 도서관학과 학생회 엮음. “제21선언:장서개발에 문제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 개혁운동 자료집』. 부산:부산대학교 도서관학과, 1989.
- 『釜山大學校 長期發展計劃(1992-2001)』. 釜山:釜山大學校, 1991.
- 송영희 외. 『장서개발론』. 서울:구미무역(주)출판부, 1992.
- 申學均. “國立中央圖書館에 있어서 古書蒐集과 管理”. 『變化하는 社會에 있어서의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과 責任-國立中央圖書館開館 60周年 記念論文集-』. 서울:國立中央圖書館, 1984.
- 安秉永. “韓國의 行政現象과 行政學 研究의 主體性”. 『韓國政治學報(韓國政治學會)』. 제13집 (1979).
- 尹炳泰. “大學圖書館에서의 古書·貴重書 藏書開發”. 『圖書館學(韓國圖書館學會)』. 第九輯 (1982).
- 윤현옥. “대학도서관의 연속간행물 업무조직에 대한 연구-부산형과 통합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부산대학교 대학원), 1993.
- 李基白. 『韓國史新論』. 改正版. 서울:一潮閣, 1976.
- 李載喆. “韓國에서의 古典籍分類考”. 『민족문화(民族文化推進黨)』. 創刊號(1975).
- 李宗范. “韓國行政學研究의 方向과 課題-文化的 差異의 概念을 중심으로-”. 『韓國政治學會報(韓國政治學會)』. 제13집(1979).
- 鄭東鉉 외 편. 『교수연구업적 1990-1991』. 釜山:釜山大學校, 1992.
- 鄭亨愚. 『朝鮮時代 書誌史研究』. 서울:韓國研究院, 1983.
- 趙東一. “民族文化研究의 課題와 方向”.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民族文化研究의 方向』. 경산:嶺南大學校 出版部, 1980.
- 崔永俊. 『嶺南大路-韓國古道路의 歷史地理의 研究-』. 서울: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90.
- 韓國圖書館協會. 『韓國圖書館統計』. 서울:韓國圖書館協會, 1992.
- 洪九杓. “大學圖書館 古書室 運營의 活性化 方案”. 『國立大學圖書館報(國立大學圖書館協議會)』. 第9輯(1991).
- 미국연구도서관협의회. “도서관 장서 보존을 위한 환경 조절”. 이병목 옮김. 『궤

- 書館文化(韓國圖書館協會)』. 제30권 제6호(1989. 11 · 12).
- Gelfand, M.A. *University Libraries for Developing Countries*. 李炳穆 譯. 『大學圖書館』. 서울:구미무역(주)출판부, 1972.
- Carter, Mary Duncan. *Building Library Collections*. 4th.ed.. Metuchen N. J. : The Scarecrow Press Inc., 1974.
- Edelman, Hendrik and Tatum, G. Marvin, Jr. "The Development of Collections in American University Librari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37(3)(May, 1976).
- Hoffman, Andrea, "Collection Development Programs in Academic Libraries : An Administrative Approach". *Bookmark*, 38(Spring, 1979).
- Taylor, L. J. comp.. *A Librarian's Handbook*. London:The Library Association, 1976.

## ABSTRACT

**The Development Program of the Collection for Korean  
Classical Materials in the University Library**  
With emphasis on the library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Jung-Sook, Song

The Long-Term Development Plan of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PNU) has announced on 1991 in order to reach its roles and levels as an Universit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 Graduate School research-oriented and a core university in its community through accomplishment of this Plan. University libraries would be planned to support their universities' goals. Therefore the Library of PNU is facing on the task for supporting the Plan.

The Collection for Korean Classical Materials(CKCM) is not limited in Korean Literature, Korean History, Korean Philosophy fields but covered the academic fields except a hightech science : Humanities, social science, pure science, applied science and arts etc. However, the Library of PNU does not have the organization, special librarian and budget for CKCM.

Under this notion organization, budget and librarian for the collection would be followed. The CKCM contains the original editions, photography editions, copied issues, microform reproductions with comprehensive subjects in the fields of studies. Especially for the collection of treasure books the role of the Library of PNU induce to open individuals' collections or families' collections to public through the Library. The equipments for preserving rare books and treasure books are the conditioners for humidity and temperature, automatic extinguishment system. The reference materials, copy machine and reading room are requested for the user service of CKCM.

The materials would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 in study and research.

Therefore the Library of PNU need to pay attention to develop and preserve CKCM.